

KDHA

korea District Heating Association

환경에너지분야를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KENERTEC** (주)케너텍

(주)케너텍

(주)케너텍 (이상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 버너 연소기기 사업을 주도해온 업체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종합제철(주)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열식가열로용 버너, 보일러용 버너, 열병합용 발전용 버너 및 공해방지기기 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포항종합제철(주), 각 산업체 등에 설치를 하여 그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포항종합제철(주) 버너국산화 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되어 총 32종의 버너를 국산화하여 국내연소기술 향상에 기여하여왔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열로 시장에도 참여하여 포스코 광양 3열연 가열로 Revamping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외국업체들이 독점하였던 가열로 공사를,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한 사업으로 국내 가열로 시장에 큰 획을 그어 왔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소규모지역열병합발전 시스템은 당사가 2001년 대전 신동아 아파트에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보급한 이후 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이 사업을 통한 빠른 성장기 기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2003년 6월에는 독일의 린덴버그사와 열병합 발전기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서 제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여왔다.

당사는 설립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

으로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여왔으며 2003년 5월에는 코스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선 회장은 지금 세계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케너텍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환경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종합EPCM형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앞서나가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이중화 사장)은 1974년 설립 이후 30여년 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최상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EPCM형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사업 분야로는 화공 분야, 에너지 분야, 산업공장 분야, SOC 및 환경 분야 등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 최상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로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가 세계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중화 사장의 포부이다.

이중화 사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가치창조를 통하여 고객 중심 경영, 환경중심 경영을 펼쳐 오늘의 현대엔지니어링을 성원

NEWS

신규가입 회원사 소개

해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술 협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열공급확대 에너지전문기업으로 발돋움  대전열병합

대전열병합발전(주)



회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의식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전열병합발전(주)사장(신동오)은 대전3·4단지내 입주기업 및 인근지역 APT단지에 증기와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판매하는 대전 유일의 열병합발전소입니다.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추진배경은 92년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시행과 그린라운드(GR)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동 사업이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되고 불확실한 국제 원유시장에 의존하는 연료비의 비중이 높아 민간부분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이에따라 침체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공자원부에서 중·장기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대상중 대전3·4산업단지를 최우선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내최초로 산업단지 와 인근지역 지역난방을 연계함과 동시에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한 연료 다원화 정책 및 미활용 에너지 활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자

원회수시설의 폐열을 활용하는 광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범적으로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전열병합발전(주)은 첫째 기동을 향상을 통한 수익증대, 둘째 신규열수요 개발확대, 셋째는 사업다각화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2010년 매출액 1,000억 달성을 위하여 전략중 신규열수요 개발확대를 경영 최고 목표로 삼고 지역난방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앞세워 대전 최대 아파트단지인 둔산지역과 주변신규아파트, 첨단 벤처 복합도시인 대덕테크노밸리등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열공급 배관 공사를 시행하거나 추진중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에 새로운 풍아  벽산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는 1979년 정우엔지니어링(주)으로 출발하여, 1999년 벽산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설계 감리 전문 회사로서 30년 가까이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지난 2000년에는 시공분야에도 진출, 환경시공 및 주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리지원, 건설, 상하수도, 플랜트, 전기, 도로, 환경, 기술지원, 도시계획, 수자원, 지반, 구조, 토목, 주택의 총 15개 사업부 5팀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1996년 획득한 ISO 9001 인증과 더불어 2003년에는 ISO 14001을 획득함으로써 공인된 기술력의 제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 전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디지털 경영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이로써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05/10/05

한남, 「혁신 전진 대회」 개최

- 체계적 혁신 추진 결의 및 혁신전문가(FT) 임명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10월 6일 본사 강당에서 임직원과 자회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혁신전진대회에서 한남의 임직원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라는 혁신 슬로건을 공표하고, 앞으로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 하였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포상하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각 부서 내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혁신활동을 주도하게 될 28명의 혁신전문가(Facilitator)에 대한 임명식도 있었다.

2005/10/20

한남, 양산지사 열공급시설 준공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金英南)는 지난 10월 20일 한남 임직원, 양산시 및 건설관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지사 열공급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양산 지역난방 사업은 당초 지난 1995년 민간 도시가스업체가 산업지원부로 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 사태로 인한 택지 분양의 지연과 사업초기의 집중적인 투자 및 긴 투자회수기간 등 지역난방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남은 양산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을 맡아 2003년 9월 양산 열공급시설 공사를 착공한 이래 총 5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온수보일러(34.4Gcal/h) 2기와 축열조(10,000m³) 2기, 지역난방 펌프(1,400m³) 3기, 열배관 9.2km × 2열 등을 건설하여

1년 8개월만에 준공을 하게 되었다.



GS POWER(주)

2005/07/18

한국동서발전과 기술 및 운영교류 협약 체결

5월 31일 한국동서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천수 사장과 한국동서발전의 이용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및 운영정보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 양사는 향후 정기적인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긴급고장 발생시 정비 자재와 정비기술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동서발전 일산복합화력발전소와 동일기종 가스터빈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열병합발전소는 각종 설비운영 기술 과 설비 개선 사항 등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함으로써 경비절감 과 기술개발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09/21

창립5주년 기념식 거행

8월 31일 안양 및 부천 강당에서 창립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을 시상했다.

회사는 2000년 9월 1일 발전 및 지역난방분야 국내 최초의 회사로 출발한 이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활동을 통해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노조 단일화 및 통합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었다.



대한주택공사

2005/06/10

대한주택공사,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 협의회 창립

공기업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

대한주택공사 (사장 韓行秀)는 1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 위원장,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학영 집행위원장 및 18개 공기업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월 9일 공공, 정치, 경제부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공기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기업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동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조직인 「공기업실천협의회」를 발족하게 된다.

SH공사

SH공사

2005/11/18

SH공사, 지역난방공급 20주년 기념행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1983년 목동지구 신시가지계획 확정(지역난방방식 채택 : 1983.5.3)에 따라 1985년 11월 20일 목동 신시가지 1단지 1,882세대에 국내 최초로 열공급을 개시한 이래 금년 11월에 지역난방공급 2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 20년사」를 발간하고 향후 안정적인 열공급과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다짐하기 위하여 11월 18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기공(주)

한전기공(주)

2005/08/25

한전기공, 인도 VPSPL사와 MOU 체결

인도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시장 공동수주 추진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기공(대표 함윤상)이 지난 25일 인도 VPSPL(Vasavi Power Service Private Limited)사와 인도 발전

설비 운전 및 정비시장 공동수주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기공 함윤상 사장은 지난 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VPSPL사의 N. Ramaiah 회장을 만나 인도에서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성능개선공사 ▲발전설비 특화기술용역 등의 사업수주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한전기공의 우수한 기술력과, VPSPL사의 인도내 영업망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인도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성그룹

대성산업(주) CO-GEN사업부

오산에너지(주)는 10월 1일자로 모 회사인 대성산업(주)와 합병하고 상호를 대성산업(주) CO-GEN사업부 오산열병합발전소로 변경하였다.

(주)한은E&C

(주)한은E&C

2005년 GS건설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한해 어려운 건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대외경쟁력 향상 및 책임시공 체제구축에 기여한 비를 인정받아 우수협력업체로 선정 상패를 전달 받았습니다. 적용기간 : 2005년 07월01일 ~ 2006년 06월30일(1년간)

아전 E&C(주)

아전 E&C(주)

2005/06/21

아전건설(주)는 2005.06.21일자로 아전E&C(주)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정리 : 간사 이정미